

〈석촌별곡(石村別曲)〉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그 의미

김혜진*

- I. 서론
- II. <석촌별곡>의 창작 배경
- III. <석촌별곡>의 표현 방식과 주제의식
- IV. <석촌별곡>의 창작과 19세기 가사 창작의 일반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석촌 정해정의 <석촌별곡>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문학적 대응을 고찰하고자 마련되었다. 정해정은 송강 정철의 삼남인 정진명의 9대손으로, 출사하지 않고 고향인 담양에서 일생을 보낸 인물이다. <석촌별곡>은 복제 간소화를 골자로 한 갑신 의제 개혁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강개한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 창작한 작품이다.

<석촌별곡>은 가사의 전범으로 일컬을 만한 전대의 가사 형식을 수용하면서, 당대의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의 제도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구현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실 문제로 인해 은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향촌 유학자로서의 무력감과 비애가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하지만, 유람과 현실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정서적 변화가 나타난다. 한 축에서는 거주지 인근의 명승지를 돌아보며 감흥을 표출하고, 다른 한 축에서는 현실 문제에 대한 울분을 직접 제시하며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며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석촌별곡>은 향촌에 거주했던 유학자로서 갑신 의제 개혁에

*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반발하며 현실적 대응 방식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다짐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9세기 말, 봉건 체제 붕괴 및 외세 침략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대명리의리관의 전승과 전통적인 지배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보수적인 이념 지향성을 기반으로 창작되었지만, 개인적 삶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문학적 실천으로서 가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19세기, 정해정, 석촌별곡, 석촌가사

1. 서론

18세기 이후 중앙 정계 진출 경험이 없는 사족들이 가사 창작을 주도하면서, 이 시기 가사는 향촌에 거주하는 사족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확보하는데 소용되었다.¹⁾ 특히 이 시기에 오류이나 권농을 강조하는 교훈가사와 현실의 모순을 날카롭게 고발하는 현실비판 가사가 새롭게 산출된바, 가문과 향촌의 교화 및 향민들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가사로 구현함으로써 가사의 대사회적 기능이 강화되었다.²⁾ 이들은 이전 시대에 창작된 가사나 동시대 경화사족이 창작한 가사의 지향과 변별되면서 가사 향유층의 확대를 견인하였고, 축적된 문학담론을 향유하면서 ‘문학의 생활화’를 수행하게 되는 기반을 형성하였다.³⁾ 이후 개방성과 다양성을 저력으로 삼아 활발하게 창작·유통된 가사는 근대계몽기에 신문 연재라는 새로운 소통 환경 속에서도 고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세기 가사가 담당했던 주요한 기능 중 하나가 이념 전달 및 담론 창출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석촌(石村) 정해정(鄭海鼎, 1850~1923)이 창작한 <석촌별곡(石村別曲)>은 개인적인 경험을 제재로 삼아 국가

1) 김현식, 『18세기 사족층 가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8~131면.

2) 안혜진, 『18세기 향촌사족 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12~222면.

3) 성무경, 『19세기 국문시가의 구도와 해석의 지평』, 『조선 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사, 2004, 460~467면.

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의론을 개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석촌별곡>은 1884년에 시행된 의제개혁(衣制改革)에 반발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전통적인 지배 질서의 회복을 열망하는 보수적인 현실 인식을 근간으로 한다. 내용적으로 가문이나 향촌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 인식을 보여주면서 형식적으로 이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설득하려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⁴⁾에서, 19세기 말 가사를 통한 시대적 대응 양상의 한 국면을 새롭게 고찰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본다.

<석촌별곡>은 이상보⁵⁾를 통해 처음 학계에 소개된 이래 19세기 가사를 개괄하는 자리에서 언급되거나⁶⁾ 김신중⁷⁾의 후속 연구 정도만 이루어졌을 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⁸⁾ 김신중은 <석촌별곡>을 은일가사로 소개한 선행 연구와 달리, 구체적인 실제의 공간과 체험을 배경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정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기행가사이면서 현실에 대한 비감 또는 자신의 무력감에서 비롯된 우울하고 서글픈 정서가 수반되는 독특한 서정 양상을 보이는 작품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⁹⁾ 이는 작품의 창작 배경과 시적 정서를 결합하여 도출한 결론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이지만, 기행가사라는 유형 분류를 전제하고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기행가사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의 개성적인 면모에

4) 진술방식의 측면에서 가사의 장르적 성격을 규정한 논의에 따르면 19세기에 이념의 전달과 설득을 목적으로 창작된 종교가사나 계너가사는 교술적 주제 양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김학성, 『가사의 실현화 과정과 근대적 지향』,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한국고전문화회, 1983 『국문학의 탐구』, 한국학술정보, 2001 제수록) 참고. 이하에서는 『국문학의 탐구』를 기준으로 인용하기로 한다.

5) 이상보, 『정해정의 석촌가사 연구』, 『명대논문집』 제12집, 명지대학교, 1979 『조선시대 시가의 연구』, 이화문화사, 1993 제수록). 이하에서는 『조선시대 시가의 연구』를 기준으로 인용하기로 한다.

6) 유연석, 『19세기 가사문학 연구』,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10집, 순천대학교, 1991.

7) 김신중, 『정해정 <석촌별곡>의 배경과 서정』, 『국학연구논총』 제12집, 태권국학연구원, 2013.

8) 이는 정해정과 그의 가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현전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상보에 따르면 정해정의 친필 유포인 『石村謾興』(乾) 1책, 『石村謾興』(坤) 1책, 『懷明臺漫草』 1책, 『石村未定草』(乾) 1책, 『石村未定草』(坤) 1책, 『石村別曲』 1책이 있었으며, 『석촌별곡』에 <석촌별곡>과 <민농가(憫農歌)>가 실려 있었다고 하나, 현재 자료의 소재를 알 수 없다(이상보, 앞의 논문, 525~527면; 김신중, 위의 논문, 3면 참고). 이하에서 정해정의 유포에 관한 서술은 이상보의 논의를 참조하였으며, <석촌별곡>은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40, 아세아문화사, 1998에 영인된 자료를 인용하였다.

9) 김신중, 위의 논문, 20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러한 가사 창작이 19세기 가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해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작품 창작 당시의 정황을 살펴본 뒤 작품 분석을 거쳐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석촌별곡>의 가사사적 의의를 온당하게 평가하고, 19세기 말 가사 창작의 일면을 재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석촌별곡>의 창작 배경

정해정의 초명은 해걸(海杰), 자는 장일(章一), 호는 방실(放室) 또는 석촌(石村)이다. 송강 정철(鄭澈, 1536~1593)의 삼남인 정진명(鄭振溟 1567~1614)의 9대손으로 출사하지 않고 고향인 담양에서 일생을 보냈다. 정해정이 거주했던 석촌은 전남 담양군 만월리에 소재했던 마을로 추정된다.¹⁰⁾ <석촌별곡>이 당대의 문체 인식을 구현한 가사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작품이 산출된 배경으로서 정해정의 시가 인식과 현실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해정이 걸출한 시가 작가를 선조로 두고 누대에 걸쳐 이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 가문의 후예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송강 가문 내에서 송강의 가사를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전승한 정황은 여러 방면에서 확인된다. 정진명의 고손자인 정민하(鄭敏河, 1671~1754)는 <선조의 관동별곡을 노래하고(歌先朝關東別曲)>¹¹⁾을 지어 관동별곡에 대한 감상을 남겼다. 정민하의 손자인 정익환(鄭翼煥, 1720~1817)은 송강의 시가 작품과 함께 종증조부인 정식(鄭湜, 1661~1731)이 용궁현감(龍宮縣監) 재임 시절 지은 <축산별곡(竺

10) 선행연구에서 <석촌별곡> 내에 등장하는 지명과 족보에 기록된 묘소의 위치를 근거로 정해정이 살았던 '석촌'이 담양군 가사문학면 만월리에 있었던 상촌마을이라고 비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상촌마을은 한국 전쟁 이후 사라진 마을로,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와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김신중, 위의 논문, 5~7면 참고).

11) “구름 속에 높이 누워 백 년을 보네니, 사람들은 세상에 진선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네. 한 가로이 관동곡을 읊고 나니, 만이천봉이 눈앞에 나란히 전해지구나.(高臥雲林送百年, 不知人世有眞仙, 閒來吟罷關東曲, 萬二千峰列眼前)”(『송강별집추록』 권1, 번역은 최규수,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2, 84~85면을 인용하였다.)

山別曲)>을 함께 엮어 『선조가사(先朝歌辭)』를 편찬하였다.¹²⁾

특히 정진명의 형인 정종명의 후손들은 황주본 계열과 의성본 계열의 두 계열을 형성하면서 『송강가사(松江歌辭)』를 간행하였다.¹³⁾ 후손들이 선조의 문집을 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두 계열이 서로가 진본임을 주장하며 몇 대에 걸쳐 간행작업을 지속한 데에는 남다른 가문의식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와전과 유실을 막고자 하는 보존 욕구와 가문의 위상 제고가 주요한 목적이었던바, 이러한 노력에는 송강에 대한 흠모와 존경이 바탕에 있었다.¹⁴⁾ 송강의 후손으로서 정해정 또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관동의 가을빛은 진정 아득한데	關東秋色政迢迢
악부는 천년동안 적막하지 않구나	樂府千年不寂寥
만첩 금강이 눈앞에 있는 듯	萬疊金剛如在眼
흰 구름 밝은 달은 가까운 듯	白雲明月近耶遙

<관동곡을 듣고(聽關東曲)>

위는 <관동별곡>에 대한 감상을 담은 절구¹⁵⁾로, 풍류와 충심을 조화롭게 구현한 <관동별곡>의 특징을 잘 포착하였다. <관동별곡>은 경물의 외면을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 경물이 촉발하는 순간의 감정을 기발하게 묘사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점이 뛰어난 작품이다.¹⁶⁾ 정해정은 관동이 비록 멀리 있지만, 관동을 노래한 작품은 오랜 세월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예찬하면서, <관동별곡>을 음미했을 때 상상하게 되는 장면을 읊었다. 일반 이천의 산봉우리가 겹겹이 쌓인 금강산의 장관이 눈 앞에 펼쳐진 듯 묘사가 뛰어난 점과 달빛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추듯 선정을 영원하며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노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동별곡>의 우수성을 드러낸 것이다.

12) 진동혁(김정년), 『정식의 『축산별곡』 연구』, 『국문학논집』 제14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13) 『송강가사』의 간행 경위 및 과정에 대해서는 박영민, 『정철 시조의 답화 특성과 전승의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6~28면 참고.

14) 최규수,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2, 75~85면.

15) 이 작품 외에 『회명대만초(懷明臺漫草)』에 <醉讀關東別曲與思美人曲>, <歌關東曲>이 실려 있다(이상보, 앞의 논문, 527~528면).

16) 이종묵, 『<관동별곡>을 읽는 재미』, 백영 정병옥 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2000, 666~668면.

이와 같은 송강가사의 향유 정황은 정해정이 가사의 창작 관습에 익숙한 인물이었음을 시사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석촌별곡』에 수록된 발문을 통해 작품의 창작 배경을 확인해 보자. 다음은 발문의 전문이다.

이상의 <석촌별곡>은 불우함에서 나왔으니 모두 내 마음을 의탁한 것이다. 노랫말의 뜻은 더없이 간절하나 곡조의 법식이 가지런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명한 사람의 웃음거리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어찌 마음을 달래는 바탕이 되지 않겠는가? 무릇 노래라는 것이 본디 불평에서 말미암으니, 그 단서가 곧 지금 나의 이 노래이다. 이것을 어찌 우연히 지었겠는가? 이지러진 세계를 돌아보면 [지초가 불에 타자] 해초와 같이 탄식하는 무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 감개를 금치 못하는 자가 비단 나뿐만이 아니리라!

생각건대 우리나라에 황명의 옛 제도는 의복 법식으로만 남았는데 다시 신(申)년[1884년 갑신년]을 당하여 그 일체를 변혁하니 실로 이것이 통곡할 때로다. 연재 송병선이 “산에 들거나 바다를 건너도 어디에 몸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일렀으니 어찌 통읍할 때가 아니겠는가! 이제부터 문을 닫아 자취를 감추고 운림에 숨어 인사를 폐하여 실낱같은 목숨을 스스로 보전할 것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지나치게 상심한다고 이를 것이고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버렸다고 비웃을 것이니, 오히려 이것이 우려된다.

간신이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러 소인을 들이고 군자를 내치어 하늘의 해를 어둡게 가리고 성스러운 조정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는 때에 이르니, 심장과 간장이 찢어지려 하고 눈물과 콧물이 턱으로 섞여 흐를 정도로 추창한 마음이 매우 지당하다. 지금 세정이 나날이 사치함을 일삼으니 재물은 탕진되고 도적은 성행하고 곳간은 비고 세금에 세금이 더해져, 백성들이 이미 도탄에 빠져 있다. 더구나 왜구와 청병이 해마다 늘어나 서울에 오래 머물고, 올해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횡행하니, 이천의 탄식이 이미 목전에 닥쳤다.

<민농사>를 짓는 데에도 시사를 끌어들이 우매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비록 참망한 죄가 혹 있더라도 미처 펴지 못한 뜻을 더욱 다하려 한 것이니 사사로운 것이 어찌 광망하지 않겠는가! 진실한 마음이 끓어오르나 둘 곳을 알지 못하겠도다! 갑신년 칠월 이십구일 석촌이 취하여 쓴다.¹⁷⁾

17) 右<石村別曲>, 出於不遇, 而亦寓己意. 詞旨至切, 調法不均, 必有高明之貽哂. 然豈不爲遺懷之委耶? 夫歌也者, 素由於不平, 這端則今余此曲. 是豈偶爾而作歟? 回視缺界, 則蕙嘆之徒, 不可縷說去矣, 不禁感慨者, 非獨余而已哉! 惟我東壤, 皇明古制, 只有衣政, 而值此溷灘重回之歲, 一切變革, 寔是痛哭處也. 淵齋所謂, “入山渡海, 不知置身於何地”, 豈不痛哭處哉! 自今伊後, 杜

발문의 도입부에서 정해정의 시가관이 잘 나타난다. 정해정은 간절한 뜻이 담긴 노랫말을 통해 이지러진 세계에 대한 강개한 심정을 곡진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노래를 불우한 처지로 인한 우울한 심회를 달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겼다. 특히 이러한 심사를 지닌 이가 자신만이 아니라는 발언을 통해 시사에 대한 사건을 공론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의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불평을 담은 <석촌별곡>이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무리에게도 공감과 위안이 되는 노래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중간부에서는 ‘이지러진 세상’으로 일컬어지는 당대의 상황과 그로 인한 비탄을 표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의정변혁(衣政變革)’의 시행에 반발하며, 두문불출하는 방식으로 처신할 것을 선택하기까지의 고민과 방황의 심정이 드러난다. 여기에서 언급된 의정변혁이란 복제 간소화를 골자로 1884년에 시행된 복제 개혁을 말한다. 고종은 1884년 윤5월 19일 간소화된 신식 군복 착용을 시작으로, 관복 간소화와 사복 개혁을 지시하였다. 관복은 둥근 깃에 좁은 소매[盤領窄袖] 양식의 흑단령을 입되, 조회에 나올 때나 대궐 안팎에서 공무를 볼 때 흉배(胸褙)를 위에 착용하여 문관·무관의 품계를 구분하도록 했다.¹⁸⁾ 사복은 귀천을 막론하고 소매가 좁은 옷을 입으며, 벼슬이 있는 자는 전복(戰服)을 덧입도록 허용하여 띠로 신분을 구분하고, 띠나 갓끈, 옷고름을 길게 늘어뜨리지 않도록 했다.¹⁹⁾

복제 개혁이 시행되자 이에 반대하는 상소가 빈번하게 올라왔고 고종은 이들을 회유, 설득하는 한편 처벌까지 불사하며 강력하게 대응하였다.²⁰⁾ 개

門裏蹤，螫於雲林，以廢人事，自保縲命。知我者，謂我過傷，不知我者，哂我自棄，尤是忡悵也。際此奸臣擅權，陟小人，黜君子，昏蔽天日，亂濁聖朝，心肝欲裂，涕泗交頤，哀愴之心，不無切至矣。目今世情，日事奢靡，財用蕩析，盜賊滋熾，倉廩乏空，稅外加稅，生民之塗炭已矣。況又倭寇與清兵，年年增益，彌留長安，至於今年，則橫行郡國，伊川之嘆，已迫目前矣。暨作<憫農詞>，亦控時事，以露愚昧之情。雖或有譖妄之罪，亦盡未伸之情，私者何不狂妄也哉！衷赤沸熱，不知所哉！甲申七月二十九日，石村醉毫。(정해정, <跋文>. 원문은 이상보, 앞의 논문, 530~531면에서 재인용; 번역은 김신중, 위의 논문, 2013, 9~10면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18) 『승정원일기』 고종 21년 갑신(1884) 윤5월 24일 세 번째 기사.

19) 『승정원일기』 고종 21년 갑신(1884) 6월 3일 열여덟 번째 기사.

20) 의제개혁을 둘러싼 구체적인 정치적 공방 상황에 대해서는 강상규, 『1884년 “의제 개혁”에 대한 정치적 독해 - 문명사적 전환기의 현실정치 공간과 한일관계의 한 측면』, 『세계정치』 제12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0, 195~211면 참조.

혁안 중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소매가 좁은 의복을 입게 된다는 것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위정척사파 관료나 재야의 유림 등 복제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복제 개혁을 중화의 전통을 훼손하고 오랑캐를 쫓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중화 문물을 보존·계승해야 한다는 점, 신분의 상하귀천을 엄격히 구분하여 기강이 해이해지는 일과 이후의 급속한 개혁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복제 개혁에 반발하였다. 반면 복제 개혁을 지지했던 개화파 관료들은 중국식 복식에 변화를 주는 정도에 그친 개혁에 반대하며 서구식 복식 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결국, 이들이 추진했던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복제 개혁 또한 정치적 기반을 잃게 되었다.²¹⁾

요컨대 복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소중화로서 조선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박규수는 『거가잡복고(居家雜服考)』에서 고대 중국의 복제가 실용적이면서 우주의 도를 구현하고 있다고 예찬하면서, 군자의 도를 실천하는 방도의 하나로 사대부 의관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이 개혁론은 송시열 이후 노론계 학맥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소중화주의와 적대적 대청관(大清觀)을 바탕으로 둔 것이다.²²⁾ 이러한 대명의식을 계승해야 한다고 믿었던 정해정 역시 복제 개혁이 시행되자 큰 충격을 받았을 만하다. 이로 인해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고 자신을 지키리라 마음먹게 된 것이다.

이어서 세태를 돌아보며 이천의 탄식이 목전에 닥쳤다고 평가하였다. 복제 개혁이 실시된 갑신년(1884년)은 명나라가 멸망한 갑신년(1644년)과 간지가 같다. 춘추시대 신유(辛有)가 이천(伊川)을 지나며 예가 무너지면 오랑캐 땅이 되리라고 탄식한 것처럼, 복제 개혁은 곧 중화문명을 훼손하는 망국의 길이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국가의 열악한 재정 상태와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상황,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상황 등 급변하는 시대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해정의 한시에서 추론할 수 있는 현실 인식 또한 이와 궤를 같이한다. 정해정은 담양 인근의 유생들과 시문으로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그중 담양

21) 이현아, 『1884년 갑신의제개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9~35면.

22) 김명호, 『환제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183~203면.

출신으로 을미의병에서 활약했던 고제량(高濟亮, 1849~1907)과의 교유가 확인된다.²³⁾ 을미의병은 유생들이 단발령으로 대표되는 을미개혁을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유린한 치욕으로 여기고, 민족적 자긍심과 주권 회복을 주장하며 일으킨 투쟁이다.²⁴⁾ 이들은 중화 중심의 사상적 기반을 공유하며, 성리학적 질서와 체제를 흔드는 당대의 개혁들을 국가적 위기로 여겼을 것이다. 또한 정해정은 회명대(懷明臺)를 지어 시회(詩會)를 열기도 하였다.²⁵⁾ 정해정의 <황매(皇梅)>에는 ‘회명대 가에 명매를 심고는 제목으로 아울러 삼는다(懷明臺上 植得明梅 故並題)’라는 세주가 있어 명나라를 회고하는 의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정해정은 간절한 심정을 담아 가사를 창작하였다. 발문에 소개된 <민농가>는 <석촌별곡>과 함께 『석촌별곡』에 실려 있으며, 악초(惡草)를 제거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민농가>에도 시사를 끌어들이었다고 한바, 권농의 목적보다는 우의적으로 시사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작품으로 이해된다. 이상 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석촌별곡>은 의제 개혁이 시행된 1884년 6월부터 발문을 완성한 7월 29일 사이, 의제 개혁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강개한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의 심정을 위로하고자 창작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III. <석촌별곡>의 표현 방식과 주제 의식

<석촌별곡>은 총 141행의 가사로 집을 나서게 된 계기를 제시하는 서사(1~4행), 주변을 다니며 경물을 감상하고 소회를 드러내는 본사(5~125행), 귀가 후의 소회를 담은 결사(126~141행)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사는

23) 정해정이 지은 시 중 <벗 고제량과 함께 배수신의 교사에 묵으면서 전운을 사용하다(與高友濟亮宿襄壽嶺喬樹以前韻)>가 있다(이상보, 앞의 논문, 522면).

24) 이동우, 『을미 의병봉기의 역사적 배경』, 『사학연구』 제49호, 한국사학회, 1995, 167면.

25) 정해정이 남긴 <황매(皇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紅荳春殘月落城, 寒梅惟有向東情, 冷塊黯淡愁烟色, 乃憫淒涼怕雨聲, 渡海不辭三譯遠, 經年忍忘舊天明, 對花倍切風泉感, 哭向皇壇淚自生”(이상보, 앞의 논문, 524면). 이 시에 차운한 이동준(李東浚, 1842~1897)의 한시가 전한다. “瑞石之南立義城, 皇朝願戴舊時情, 東海人歸還想像, 西山歌詠可應聲, 大統乾坤看處碧, 崇禎日月坐來明, 誰能倍感先天事, 太白高風有此生”(이동준, <삼가 정사문(해정)의 회명대 시를 차운하다 謹次鄭斯文海鼎懷明臺韻>, 안동고 역, 『화석유고』, 심미안, 2016, 153~154면 참고).

다시 주요 배경이 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본사1 종산 등정(5~46행), 본사2 사모암 방문(47~89행), 본사3 적벽 유람(90~125행)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세 부분의 분량은 비교적 균형적으로 안배되어 있다.

본사에서 등장하는 공간들은 거주지인 석촌 근방에 자리한다. 본사1에 등장하는 종산은 전남 담양군 정곡리에 위치한 북산이고, 본사2의 배경인 사모암 또한 정곡리에 위치했던 서봉사 근처에 족속이 세운 암자이다. 본사3에서 뱃놀이를 하는 적벽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 창랑천 일대이다. 이들을 둘러보는 근교 기행은 은거의 연장에 놓인 행위로 작가의 정신세계를 바꾸어 놓을 만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²⁶⁾

더 손의 셋는 돌이 瑞石인가 立石인가
 悠然이 보는 눈이 즈세도 물을씨고
 夕日이 曛曛한디 구름은 무슨 일고
 기 뒤러서 즈세 알아 놀드려 일알순가

(1~4행)

인용문은 <석촌별곡>의 서사에 해당한다. 멀리 보이는 돌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길을 나서게 되는데, “悠然이”와 “曛曛한디”를 통해 감지되듯 취흥에 젖어 여정이 시작된다. 앞서 본 창작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세사로 인한 우울한 심사를 달래보려는 시도로 이해되는바, 현실로 인한 개탄과 울분의 정서가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조하게 된다.

그러나 유람과 현실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정서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촌별곡>은 한 축에서는 본사1과 본사3을 중심으로 거주지 인근의 명승지를 돌아보며 감회를 드러내면서 또 다른 한 축에서는 본사2와 결사를 중심으로 현실 문제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제기하며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양상이 나타난다.²⁷⁾ 본

2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4판)』 3, 지식산업사, 2005, 356면.

27)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석촌별곡>을 종산-사모암-적벽 일대-석촌의 자택으로 이어지는 4단 구성으로 나누고, 유람 기행에 대한 감흥(밝음)-시절에 대한 상심(어두움)-유람 기행에 대한 감흥(밝음)-시절에 대한 상심(어두움)의 정서가 차례로 반복되나 전체적으로는 시종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지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신중, 앞의 논문, 18면). 본고에서는 우울한 심사가 지배적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시적 정서의 흐름에 대한 해석에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장에서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석촌별곡>의 특성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1. 관습적 표현의 빈번한 활용과 감흥의 차별화

<석촌별곡>의 본사1에서는 동산-용추지-폭포대-신선대-종산의 이동 경로가, 본사3에서는 고소대-진외정-청정재(遺址)-태수대-창용정의 이동 경로가 나타난다. 이는 전체적으로 만폭동에서 불정대까지 금강산을 유람한 뒤 총석정에서 망양정까지 동해를 둘러보는 <관동별곡>의 구성 방식과 유사하다. 작품 내에서 <관동별곡>을 영향을 받은 구절들도 확인된다. 그러나 <관동별곡>에서 여정의 변화와 정서의 추동이 긴밀하게 맞물리는 것과 달리, <석촌별곡>에서는 종산에서 적벽으로의 공간 이동이 계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여정의 변화와 시적 정서가 긴밀하게 조응하지 않는다. 즉, <석촌별곡>은 여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감흥을 표출하는 기행가사의 외현을 따르면서도, 기행 외적인 현실 문제에서 촉발된 울울한 심사를 기반으로 승경에 대한 감회를 토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때 본사1과 본사3을 지배하는 시적 정서에서도 차이가 난다. 본사1에서는 승경을 감상하는 만족감과 자부심을 표출하는 부분의 비중이 크지만, 본사3에서는 고독감과 무상감을 표출하는 부분의 비중이 크다. 이러한 비중의 차이로 인해 감흥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적 정서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본사1과 본사3을 살펴보기로 한다.

葛巾을 기우 씨고 芒鞋를 뵈야 신어
樵路을 걷티 谿石를 볼바 올라
毘公의 行跡으로 東山의 行迹하니
山人은 樵樓호고 林鳥는 間關호디
完全호 潺潺水가 六七里를 빗겨시니
아미도 몰올씨고 峰回路轉 分明호다
滁山의 六六洞이 여기런가 저기런가
林壑은 蔚然호디 景槩도 가들씨고
今韓愈은 어디 가고 山林만 닌는고야

(5~13행)

인용문은 본사¹의 첫 여정인 동산(東山)에 오르는 장면이다. 서둘러 채비를 차려 길을 떠난 뒤 주변의 풍경과 정다운 새소리를 감상하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때 <성산별곡(星山別曲)>²⁸과 <취옹정기(醉翁亭記)>²⁹의 도입 부분을 활용하여, 동산에 오르는 정취를 표현하고 있다. 자신을 구양수에 비기면 자연스럽게 동산은 <취옹정기>의 배경인 저산(滁山)과 동일시된다. 저산을 형용하는 구절을 시어로 활용하여 동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뒤, 동산과 저산의 경계가 같다고 감탄하였다. 인용문의 마지막 행은 <관동별곡>의 “詩仙은 어디 가고 咳唾만 나맛느니”를 연상케 하는바, 송강의 의상대의 일출을 보며 이백의 시구를 떠올린 것과 자신이 동산에 올라 구양수의 <취옹정기>를 떠올린 것을 병치하여 풍광에 대한 만족감을 부각한 구절로 이해된다.

동산을 지나 폭포대에 오른 감회를 나타낼 때도 “龍湫池 돌아들어 瀑布臺 올라하니 廬山의 眞面目이 가뜰씨고 여기로다”라며 폭포대의 형상을 ‘여산의 진면목’에 견주며, 여산에 은거했던 인물인 백거이(白居易), 동봉(董奉)과 여산요(廬山謠)를 지은 이백(李白)의 자취를 좇는다. 이처럼 역사 전고를 통해 주제의식을 표출하는 방식은 자신이 지향하는 풍류와 전대 인물의 풍류를 포개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자신의 풍류를 다면적으로 인식하게 한다.³⁰ 이 역시도 <관동별곡>에서 풍류를 표현하는 방식을 떠올리게 하는바, 옛 선인들의 풍류에 송강의 풍류까지 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흥취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종산의 정상에 오르면 이러한 풍류가 절정에 달한다.

더 鍾岳 밋 옷층의 翩翩裙屐 언듯 올라
 흥정 업시 불익오니 曠遠하다 더 湖山니
 여기 와 다 뵈는다 ㄷ 일너 무슴홀가
 더기 가는 六七詩隊 星山別曲 불의면서
 息影亭 을의야고 瀟灑園 잠간 취코

28) “麻衣를 니미츠고 葛巾을 기우 쓰고”, “芒鞋를 비야 신고 竹杖을 훑더디니” <성산별곡>, 『송강가사(松江歌辭)』

29) “山行六七里, 漸聞水聲潺潺而瀉出于兩峰之間者, 醜泉也. 峰回路轉, 有亭翼然, 臨于泉上者, 醉翁亭也.” <취옹정기>, 『古文眞寶 後集』 권6.

30) 이종목, 앞의 논문, 675면.

環碧堂 竹林밧긔 釣臺의 올라서서
 鷗鷺嶺 紫微灘을 有意케 귀경훈가
 어와 더 君子야 뉘기뉘기 왓단 물고
 기 노립 조귀이와 언위제나 춤예홀가

(38~46행)

종산 등정의 소회를 드러낸 부분이다. 이 대목 바로 앞부분에서 신선대에 앉으니 백학관의 바둑 소리가 완연히 들리는 듯하다며 도가적 풍류를 고취하고, 신선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날 듯이 종산 정상에 오른 모습을 형용하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포착한 대상은 다름 아니라 <성산별곡>을 부르는 예닐곱 명의 시대(詩隊)이다. 나아가 이들이 구경하는 곳은 <성산별곡>의 배경인 식영정과 그 주변에 있는 조대, 노자암, 자미탄을 비롯하여 송강이 한시를 수창하며 놀았던 소쇄원, 송강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던 환벽당 등 모두 송강과 관련된 유적이다.

일일이 호명된 지명들은 개방된 ‘공간’을 넘어 주관적 가치를 부여받은 ‘장소’로서³¹⁾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 가치는 바로 <성산별곡>에서 구현된 풍류의식이 자신이 지향하는 바와 맞닿아 있다는 점일 것이다. <성산별곡>은 귀거래를 명분으로 삼고 때를 기다리는 안식처로 자연을 인식하고 자연에서의 풍류를 즐기는 사대부적 삶의 지향을 여실히 드러낸 작품이다.³²⁾ 여기에서 <성산별곡>을 환기하며 시대(詩隊)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송강의 문학적·정신적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소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바 종산 등정을 다룬 본사1에서는 송강의 가사나 역사 전고를 활용하여 승경에 대한 찬탄과 신선적인 풍류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이곳을 터전으로 삼아 자연에 귀의한 자신의 삶에 대한 긍지와 자족이 자리한다. 그러나 본사3에서는 경관을 감상하면서도 옛 사람의 자취를 찾을 수 없음을 탄식하는 부분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다른 미감을 자아낸다. 이는 본사2에서 현실 인식이 개입되면서 일어난 변화로, 본사2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본사3은 화순의 적벽을 배경으로 한다. 적벽은 원래 ‘석벽’이었던 지명이

31) 이푸투안,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19면.

32) 정대림, 『<성산별곡>과 사대부의 삶』,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2000, 643면.

‘적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을 따라 늘어선 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지명의 동일성과 함께 유배객이었던 소식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었던 만큼, 본사3에는 소식의 <적벽부(赤壁賦)>를 활용한 표현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孤舟을 解纜하여 中流의 쓰위 니니
 江 우의 떠난 白鷗 鶴가치 오난고야
 못노라 저 白鷗야 天地間의 壯혼 기별
 英雄 蹤跡 츠즈고야 星稀月明 발이보니
 浮雲가탄 三國 일력 더욱 날너 무슴홀니
 滿江舳舻 간 디 업고 橫梁賦詩 나마 닛니
 寂寂호 武昌 비의 烏鵲만 지지관다
 烏林腥塵 시치야고 謫下文章 기 님런가
 前後賦 써어닐제 水調歌 불너호니
 忠誠은 카니와 辭意도 간절씨라
 엇지호야 畏口호고 不畏文字 불범쓰다
 長公은 어디가고 東山月만 걸여고야
 二客의 부는 洞簫 嫠婦만 우뚝편가
 千年往蹟 못노나니 기 아니 슬름손야 (96~109행)

인용문은 본사3에서 고소대를 지나 진외정에 이르는 부분이다. 경치에 대한 묘사 대신 조조나 소식의 자취를 찾을 수 없는 현실에 슬퍼하는 심정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난세를 구원할 영웅을 회구하지만 영웅도 구하지 못한 나라의 역사를 떠올리며 무상감을 더하고, 소식의 <수조가(水調歌)>에 담긴 충심을 되새겨보지만 구슬픈 통소 소리만 남아 서글퍼진다.

여기에서는 현재 자신의 눈앞에 놓인 경치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시구나 전고를 끌어와서 회고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본사1에서 전고를 활용하는 방식과 대조적이다. 본사1에서는 자신이 현재 놓인 공간을 전대의 유명한 풍류 공간과 동계에 놓기 위해서 쓰였다면, 본사3에서는 자신이 현재 놓인 공간에 전대의 인물과 같은 존재가 부재한 상황임을 부각하는 데 쓰였다.

간는 디로 비를 노와 滄浪江 들리달라
 清流의 끈을 씻고 濁流의 불를 씻쳐
 太守臺 고쳐 올라 孺子歌 불르오니
 물결은 치 즘난디 心神도 漠然하다

(110~113행)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굴원의 <어부사(漁父辭)>를 끌어와서, 위기를 타개할 영웅이 없는 현실에서 자신이 견지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 지조를 굳게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心神도 漠然하다”라는 심경에서 드러나듯 현실 문제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로 인해 마지막 여정인 창옹정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한껏 즐기는 부분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일어툃 도흔 世界 남디도 뵈오고져”에는 혼탁한 속세와 단절하기 위해 은일의 삶을 택하였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현실에 관심을 두고 있는 내면이 감지된다. 이는 <관동별곡>에서 귀결된 애민정신에 대한 계승이자 <성산별곡>이 지향했던 자세라는 점에서 경세(經世)를 지향하며 은거를 택하는 전통적인 사대부의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이에 결사에 이르러 앞으로의 삶에 대한 내적 다짐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다.

2. 대화 삽입과 처사 의식의 내면화

본사1과 본사3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진행된다면 본사2에서는 선옹(仙翁)과의 대화가 제시된다. 여기에서 손이 선옹의 거처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은 <성산별곡>의 도입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성산별곡>에서 손이 식영정 주인에게 던지는 “엇디흔 江山을 가디록 나이 녀겨 / 寂寞 山中의 들고 아니 나시논고”와 같은 물음이 <석촌별곡>에서는 역으로 선옹이 손에게 묻는 물음으로 나타난다. 선옹의 물음으로 인해 손 역시도 자연에 은거하며 신선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어디셔 오난 仙翁 白髮蒼顏 도훤 威儀
 헌스도 헌스홀샤 이니 꿈 씨와닌가
 甚偉흔 더 衣冠이 綺里翁과 엇더흔고
 놀디러 닐은 말리 엇지하야 이 江山을

가지록 나히 너겨 들고 아니 나눈고야

(…)

無情하다 더 歲月아 이 네 白髮 무슨 일고
城市囂塵 멀리 하고 鍾山月의 지피 들어
是非 피코 遞迹훈가 그 일 니 알고고져

(59~76행)

중략된 부분에서는 채약(采藥), 음수(飲水), 저서(著書), 바둑, 장기 등의 일상을 나열한 뒤, 동생(董生), 이원(李愿), 서치(徐禪), 한강(韓康) 등 은사들의 풍채에 비겨 은둔 생활의 정취를 칭송하였다. 대개 신선의 삶이라면 흔히 도끼의 자루가 썩어 없어질 만큼 세월의 흐름을 초월한 삶이어야 할 법한데, 선옹은 백발이 된 손을 걱정하고 있다. 속세를 초월한 진정한 신선의 삶은 아닌 셈이다. 따라서 선옹의 물음에서는 신선의 흥취를 자랑하는 부분이 아니라 종적을 감추게 된 사연을 알고 있다며 위로로 건네는 부분에 방점이 놓인다. 선옹의 물음은 곧 발문에서 밝힌바 나를 아는 사람이 나의 상심을 우려하는 말로도 이해된다. 비로소 은둔하게 된 사정과 그로 인한 내면의 심사를 풀어놓게 되는 것이다.

어와 더 神仙翁아 이니 말 즈세 듯쇼
朋友親戚 다 발리고 故園兄弟 멀리 하니
이 니 마음 밋친 실음 기 뒤르셔 알올손가
退翁의 闕里 구경 이제 와 거더 두고
陶山景 써어 니여 외로 안즈 본노라니
어디서 오는 벗님 辨誣疏 외온 말리
크거나 더 큰 經綸 月翁의 度畧이라
北征호준 大老의논 기 아니 壯息손가
於焉星霜 二百年의 寒潭秋月 흔적 업니
昏衢의 後生들은 羣賢論難 어디 불고
紛紜하다 近日消息 날다려논 말치 마오
太白山이 어디미오 處士詩나 외오고져
控訴홀 더 전히 업서 山水間의 부치고져

(77~89행)

답변을 건네며 먼저 마음에 맺힌 시름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며 한탄한

다. 가까운 사람들을 다 버리고 자연에 은둔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문제이지만, 이정귀(李廷龜)의 도락과 송시열(宋時烈)의 북벌론을 떠올리며 이들처럼 국난에 적극적으로 맞설 현인들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 개탄할 뿐이다.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이미 알고 있는 근일소식을 외면하고, 태백산에 은거했던 선조 보연(普衍)이 지은 처사시를 읊으며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현실에 대한 울분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 자연에서나마 시름을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³³⁾ 이는 발문에서 밝혔듯 어디에 몸을 둘지 모르는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연에 은둔함으로써 자신을 보존하겠다는 뜻을 고스란히 담아낸 구절로 이해된다.

이처럼 본사2에서는 ‘근일소식’으로 집약되는 현실 문제에 대한 울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를 달래보고자 했던 여정이기에 본사1에서 자연은 풍류의 대상으로 그려진 반면 본사2에서는 현실을 외면하고 은둔하는 도피처로 기능한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 대한 관심이 견인하는바 본사3에서는 자연에 몰입하지 못하고 현실 문제로 인한 고민을 토로하게 된다. 결사에 이르면 이러한 고민에 대한 나름의 결론이 도출된다.

遭變호 더 曆數은 涒灘이 重回로다
鳴乎라 小大興情 風泉悲感 아닐손가
我東偏壤 저긴 封疆 僅存遺物 무셔신고
廣袖麗帶 조훤 거동 皇明舊制 기 아닌가
이제 와 불려두니 羅麗陋俗 어이 홀가
燦然호 先王 濃服 어더 가 쏘 불손가
雙明律 갈마두고 憫農詩 외오고저
어디서 부난 狂飄 瑞石의 쓰난 구름
一時의 거더가니 太古顔面 기 아닌가
分明호다 더 瑞石아 기 아니 불벌손야
말 업고 是非 업시 啞昔龔今 호여닛다
나도 엇지 너와 갓치 脫屣今世 호여서라

(130~141행)

33) “개복조령을 보니 마음속이 취한 듯 감회를 금치 못하여 손에는 낚싯대 하나 들고 머리에 는 삿갓 하나 쓰고, 산수간에서 마음을 풀었다(見改服詔令 中心如醉 不禁感懷 故手持一竿竹 頭戴一笠子 放懷山水之間).”라는 세주가 전한다.

결사는 귀가 후의 소회를 토로하는 부분이다. 발문에서 다른 복제 개혁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현실 인식을 드러내었다. 복제 개혁을 둘러싼 논란들은 예를 잃어가는 망국의 비감을 자아낸다. 동쪽에 치우친 작은 나라에서 유일하게 대명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 복제를 버리고 비루한 풍속으로 바꾸려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자신만큼은 대명울을 간직하고 민농시를 외우는 방식으로 현실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심 끝에 포착되는 것은 태고적 모습을 간직한 채 서 있는 서석이다. 이 서석은 작품의 서두에서 실체를 알기 위해 길을 떠나게 한 존재이기도 하다. 서석의 불변성이야말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대변한다.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위인도 찾을 수 없고 자연에 있는 것만으로 현실 문제로 인한 시름을 풀 수도 없기에, 서석과 같이 시비를 피해 은둔하며 자신을 보전하고자 하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석촌별곡>은 복제 개혁으로 표상된 현실을 거부하며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려는 다짐을 담은 작품이다.

IV. <석촌별곡>의 창작과 19세기 가사 창작의 일면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19세기 가사의 흐름 속에서 <석촌별곡>이 지닌 의미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19세기 말은 봉건 체제 붕괴 및 외세 침략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석촌별곡>은 갑신 의제 개혁에 반발하며 현실적 대응 방식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다짐을 드러내었다. 의제 개혁은 중화 중심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중화의 문명을 계승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커다란 위기 속에서 이를 문제 삼으며 완고한 이념을 내세우는 가사가 창작될 수 있었다.

19세기 사대부 가사는 현실적 생활담론매체로서 사회·문화 담론을 형성해내면서 현실의 모순 고발, 오류 및 종교이념의 전달, 국내외 기행을 통한 인식의 확장과 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여겨진다.³⁴⁾ <석촌별곡> 또한 가사를 통해 사회·제도적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

34) 성무경, 앞의 논문, 462면.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생활화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러한 흐름과 변별되는 지향을 보여준다.

동학 가사, 의병 가사, 천주교 가사 등은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 부합하는 이념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출되었다. 이념에 대한 공감대 확장을 목적으로 창작되어 기억과 환기가 용이한 기계적 율격과 작자가 독자를 직접 설득하는 주제적 양식을 활용하여 교술적 주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³⁵⁾ 동학 가사를 예로 들어보자.

몽에 우의편천 일도스가	효유희서 하느말이
만학천봉 텃텃하고	인적이 적적훈더
잠즈기논 무슴일고	슈신제가 아니하고
편답강산 하단말가	

(…)

하원갑 지나거든	상원갑 호시절에
만고업논 무극대도	이세상에 날찌시니
너논또흔 년천희서	억조창성 만은빅성
태평곡 격양가를	불구에 불찌시니
이세상 무극대도	전지무궁 안일넉가
턴의인심 네가알까	하늘님이 뜻슬드면
금슈갓흔 세상사름	얼푸시 아라니네

최제우,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

<몽중노소문답가>는 1861~1862년 사이에 창작되었으며,³⁶⁾ 노부부가 치성을 드려 늦게 낳은 비범한 아들과 금강산 도사의 문답을 통해 동학의 깨달음을 전달하는 작품이다. “요순지치라도 부족치요 공맹지덕이라도 부족언이라”라며 요순이나 공맹의 선치로도 구제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는 소년에게 도사는 근심하지 말고 하늘님의 뜻에 따라 ‘무극대도’가 날 때를 기다리라고 한다.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도사의 일방적인 전언을 통해 교의를 설파함으로써 동학의 이념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석촌별곡>에

35) 김학성, 앞의 논문, 191~195면.

36) 김문기 주해, 『동학가사』1, 역락, 2009, 54면.

등장하는 대화는 은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비분강개한 정서의 토로가 주를 이룬다. 보수적인 이념 지향성이 시적 정서를 견인하고 있지만, 이념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가사와는 실현 방식이 다르다.

19세기 전반기에 창작된 현실비판 가사들은 피폐한 향촌의 참상을 고발하면서, 왕이나 선치자(善治者)에 기대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³⁷⁾ <석촌별곡>에서도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비판의 대상이나 지향하는 의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현실비판 가사는 향촌 단위를 중심으로 총체적 사건을 고발하는 데 관심을 두지만, <석촌별곡>은 사회 제도적 문제와 그 근간에 놓인 이념 논쟁에 관심을 둔다. 이에 따라 현실비판 가사는 공개적 발화 형태로 문제를 전달하여 집단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석촌별곡>은 내적 발화 형태로 개인적 서정을 표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실비판 가사에서는 향민의 편에서 향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민의식의 회복을 바라는 진보적인 의식을 지향한다면, <석촌별곡>에서는 대명리의관의 전승과 전통적인 지배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보수적인 의식을 지향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석촌별곡>은 정해정이 향촌에 거주했던 유학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방편으로, 현실 문제에 대한 문학적인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송시열의 후손인 연재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 상소를 올려 현안에 반대했듯이, 정해정은 가사를 창작하고 연재의 상소 내용을 발문에 인용하여 자신의 의론을 개진하였다.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이자, 불평한 심사를 토로하고 위로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식이 가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행가사에서 자신의 내면의식을 투사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형상화하는 방식³⁸⁾은 다양한 전고를 활용하여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에 효과적이다. 송강가사로 위시되는 가사의 관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대의 가사 형식을 수용하면서 당대의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석촌별곡>의 현실 인식을 개인의 한계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전 시기인 18세기는 향촌사족들이 가사를 통해 가문의 결속과 향촌의 교화

37) 이하에서 서술된 현실비판 가사의 특징은 고순희, 『19세기 현실비판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참고.

38) 조세형,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56면.

를 담당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창작된 가사에서는 사회적 기반과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처사적 명분과 유가적 실천 규범을 강조하는 모습을 통해 사족으로서의 신분 정체감과 위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³⁹⁾ 가사를 통해 자기가 거주하는 향촌에서 기존의 유교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던 시이기 때문에 가사 창작에도 적극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향촌사족은 향촌 내에서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대부분 상실하게 되면서 이전 시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이로 말미암아 사족으로서의 공적 윤리나 책무와 무관한 개인적 성격을 띠는 가사들이 출현하게 되었다.⁴⁰⁾ 이 시기를 넘어선 19세기 후반은 이질적인 이념들이 공존하면서 기왕의 질서가 실질적으로 와해되어 가던 시기이다. 정해정은 이러한 시대에 맞닥뜨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 자체를 고민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가사 창작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며, 불우한 심사를 의탁하였다. 비록 시대에 뒤쳐진 보수적인 인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 삶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문학적 실천으로서 가사가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 결론

본고에서는 그간 학문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정해정의 <석촌별곡>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정해정의 현실 인식과 문학적인 대응 방식으로서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정해정은 송강의 후손으로 가사의 창작과 향유에 익숙했던 인물이었으며, 갑신 의제 개혁에 대한 비분강개한 심정을 담아 <석촌별곡>을 창작하였다. <석촌별곡>은 가사의 전범으로 일컬을 만한 전대의 가사 형식을 수용하면서, 당대의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의 제도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구현하였다. 자신에게

39) 안혜진, 앞의 논문, 223면.

40) 윤병용, 「남석하 가사의 특징과 19세기 향촌사족의 시적 지향」, 『고전문학연구』 제55집, 한국고전문학회, 2019, 28~33면.

익숙한 형식으로 현재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고나 유명한 시문 등 자신에게 익숙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주제의식을 표현의 층위에서도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석촌별곡>에서는 자연 경물을 유람하고 선현들의 지취(志趣)를 체득하며 현실에 대한 울분을 해소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세사를 피해 자기 수양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은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향촌 유학자로서의 무력감과 비애가 시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일면 예견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석촌별곡>이 보여주는 서정의 양상은 전통적인 가사의 역할에 기대어 19세기 말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고민과 울분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19세기 가사 창작의 일면을 재고하게 한다. <석촌별곡>과 더불어 <민농가>를 고찰함으로써 석촌가사가 차지하는 가사사적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정립하는 일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그간 19세기 가사의 근대적 지향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축적되었다. 근대와의 거리를 기준 삼지 않고 이 시기에 산출된 다양한 작품들의 의미를 온당하게 평가함으로써, 19세기 가사사의 전모를 면밀하게 밝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고는 이러한 사례의 하나로 정해정의 <석촌별곡>을 고찰한 데 불과하다. 지속적으로 통시적·공시적 차원에서 19세기에 산출된 작품들을 풍성하게 논의함으로써 19세기 가사가 확장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서의 포용성과 개방성이 다채롭게 구명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송강전집(松江全集)』(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1964).

『승정원일기』(한국고전종합 DB).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40, 아세아문화사, 1998.

김문기 주해, 『동학가사』1, 역락, 2009.

2. 단행본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이동준, 안동고 역, 『화석유고』, 심미안, 201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4판)』 3, 지식산업사, 2005.

최규수,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2.

이푸투안,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3. 논문

강상규, 「1884년 “의제 개혁”에 대한 정치적 독해 - 문명사적 전환기의 현실정치 공간과 현실관계의 한 측면」, 『세계정치』 제12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0, 183~225면.

고순희, 「19세기 현실비평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김신중, 「정해정 <석촌별곡>의 배경과 서정」, 『국학연구논총』 제12집, 태민국학연구원, 2013, 28~51면.

김학성, 「가사의 실현화 과정과 근대적 지향」,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한국고전문학회, 1983, 229~259면(『국문학의 탐구』, 한국학술정보, 2001, 161~195면 재수록).

김현식, 「18세기 사족층 가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박영민, 「정철 시조의 담화 특성과 전승의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성무경, 「19세기 국문시가의 구도와 해석의 지평」, 『조선 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서, 2004, 451~470면.

안혜진, 「18세기 향촌사족 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유연석, 「19세기 가사문학 연구」,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10집, 순천대학교, 1991, 165~205면.

윤병용, 「남석하 가사의 특성과 19세기 향촌사족의 시적 지향」, 『고전문학연구』 제55집, 한국고전문학회, 2019, 5~38면.

- 이동우, 『을미 의병봉기의 역사적 배경』, 『사학연구』 제49호, 한국사학회, 1995, 145~176면.
- 이상보, 『정해정의 식촌가사 연구』, 『명대논문집』 제12집, 명지대학교, 1979, 35~63면 (『조선시대 시가의 연구』, 이회문화사, 1993, 518~546면 재수록).
- 이종묵, 『<관동별곡>을 읽는 재미』,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2000, 665~677면.
- 이현아, 『1884년 갑신의제개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정대림, 『<성산별곡>과 사대부의 삶』,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2000, 637~644면.
- 조세형,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진동혁(김정년), 『정식의 『축산별곡』 연구』, 『국문학논집』 제14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103~126면.

The Perception of Reality and its Significance in *Seokchon Byeolgok*

Kim, Hye-jin

Seokchon Byeolgok is the work of Jeong Hae-jeong (1850-1923), also known by the courtesy name of Jangil as well as the pen names Bangsil and Seokchon. The creation of *Seokchon Byeolgok* was inspired by two factors. First, Jeong Hae-jeong, who, as a descendant of Songgang Jeong-cheol, actively enjoyed Songgang's gasa and was familiar with the tradition of gasa, considered gasa a means of consoling one's grievances. Secondly, he desired to express his opposition to the clothing reform. The clothing reform called for official attire to be simplified. Jeong Hae-jung believed that the clothing reform undermined tradition and threatened Joseon's identity as 'Little China'.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Seokchon Byeolgok* is that it imitates the external form of gihaeng gasa(travel poetry), narrating a journey in chronological order and detailing the emotions inspired by the journey, but the sentiments evoked by the incredible views are rooted in the narrator's internal turmoil and sense of melancholy caused by the problems of reality. Jeong Hae-jeong overtly expressed his anger over the problems of the real world and clearly displayed his desire to withdraw from reality into nature and stick firmly to his beliefs. By doing so, he created a work that displays an acute consciousness of contemporary issues in a literary form based on the gasa of the preceding era, arguably the model standard of gasa.

Though the sentiments portrayed in *Seokchon Byeolgok* may seem conservative and outdated in the context of the late 19th century, a fast-changing era due to factors such as the collapse of the feudal system and the invasion of foreign powers, *Seokchon Byeolgok* is meaningful in proving that gasa was still effective as a means of responding to personal events and the demands of the times in a literary way.

keywords: 19th Century, Jeong Hae-jeong, *Seokchon Byeolgok*, Seokchon gasa

접수일자: 2021. 3. 31.
심사기간: 2021. 4. 1.~2021. 5. 10.
게재결정: 2021. 5. 10.